

# Dewey 십진분류법 제20판의 해설

Sheila S.Intner 著  
오 동 근 譯  
<충남대문헌정보학과 강사>

本稿는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33, No.2 1989.3-4)에 실린 Simmons Colleg 의 S.S. Intner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새로이 改訂된 DDC 제20판에 대한 포괄적인 解説記事로, 利用을 위한 작은 指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譯者註>

## <目次>

### 序言

#### 1. 內容上의 主要變更事項

- 1) phoenix表
- 2) 그 밖의 展開部分 및 改訂部分
- 3) 再配置部分

#### 2. 體裁上의 變化

### 結言

## 序言

오랜 기간 동안 예고되었지만 상당한 세월을 마음 졸이며 기다려왔던 Dewey十進分類法의 제20판(DDC 20)이 드디어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美國은 물론 外國의 수천개 도서관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과연 이것은 Melvil Dewey의 동의를 받을 만한 最新版인가? 記號의 整合性(integrity of number)을 유지하는 것과 知識과 主題의 상호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 사이에서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이 分類法을 사용하고 있는 司書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은 과연 여기에서 제19판보다는 개선된

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時間과 費用, 勞力을 들여 이를 채택하여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한편 이 新版의 內容 및 그 이전판과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 1. 內容上의 主要變更事項

DDC의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DDC 제20판에는 몇가지 종류의 變更事項, 즉 현재는 “完全改訂(complete revision)”이라고 불리고 있는 전체적인 改訂과 관련된 대개의 경우는 表가 재배치되는 가장 길고도 가장 광범위한 變更事項인 phoenix表, 그 밖의 극단적인 성격은 다소 적은 改訂部分, 느슨한 마무리 부분을 조여매고 表現이나 細區分에 있어서 요망되는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사소한 變更事項, 어떤 主題의 文獻에 있어서 중요성이 생겨나거나 중요성이 제기되어 온 새로운 下位主題를 수용하기 위한 展開部分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는 대체로 phoenix表, 그밖의 改訂事項 또는 展開部分, 再配置部分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1) phoenix表

이미 별도로 발행되어<sup>1)</sup> 여러 文獻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온 두개의 phoenix表가 DDC20에 포함되어 있다. 즉 이전에는 .001.6+에 배열되었던 004-006의 Data processing/Computer science (두 用語가 모두 標目으로 나타난다)와, 그대로 780-789에 배열되지만 1980년의 本表草案에 나타난 主題와 下位主題를 완전히 새롭게 배열한 音樂 (Music) 부분이 그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배열은 *British Catalogue of Music*을 작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분야의 문헌에 대한 分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두개의 phoenix表는 DDC의 개발과정을 꾸준히 뒤따라온 分類擔當者에게 있어서는 놀라울 게 없을 것이지만(예를 들면 音樂의 phoenix表 草案은 이미 8년전에 발행되었다), 개정된 草案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나아가 이를 무시해 버린 도서관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을 세우고 직원의 時間과 資金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들 두개의 phoenix表는 이전의 표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된 것이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phoenix表의 작성원칙은 여러 分類擔當者로부터 상당히 많은 분노와 흥분을 일으키고 있다. Data processing/Computer science를 그 자체의 세계의 완전한 부분으로 전개한 것은 이전의 인식부족과 이 새로운 분야의 階層構造에 다양한 下位主題와 그 하위주제의 下位主題를 수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분야의 一般著作을 5자리

記號 -001.64-로 시작하거나, 形式이나 地理, 또는 그 밖의 특수한 측면에 대하여 부가되는 細區分을 갖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조차도 단순한 下位主題에 대하여 7자리 기호가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004-006을 기존의 도서관 장서에 적용하여 실험한 1988년말에 발행된 Schroeder<sup>3)</sup>와 Rooke<sup>4)</sup>의 조사결과는 아직까지도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司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결과에서는 모두 새로운 표가 이해와 적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書架上에 자료의 배열을 더 논리적이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로운 音樂 分類表도 발행되었을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의 文獻의 연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sup>5)6)</sup> 그리고 이제 그것은 그것이 完全版으로 통합됨으로써 틀림없이 더 많은 것을 이끌어 내게 될 것이다. 演奏者 및 音樂愛好家들은 現代音樂研究의 성격과 이 분야의 다른 문헌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서 제공하는 특수한 facet法을 사용하고 또한 作曲技法과 演奏媒體로 구분하던 것을 연주매체의 유형(즉 聲樂, 양상발, 樂器)만에 의한 統合排列로 새로운 구조를 변경시키게 됨으로써 더욱 훌륭한 봉사 받게 된다. 789를 作曲者와 音樂의 傳統 (composers and traditions of music)을 위한 任意部分으로 유보하도록 함으로써(비록 781-788이 後者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선적으로 선택될 것이지만) 대규모의 자료로 이루어진 藏書의 排列方法을

1) 004-006 *Data Processing and Computer Science and Changes in Related Disciplines*, Rev. ed. 19, prepared by Julianne Beall(Albany, New York: Forest Press, 1985).

2) *Proposed Revision of 780 Music*, prepared under the direction of Russell Sweeney and John Clews(Albany, New York: Forest Press, 1980).

3) Carolyn D. Schroeder, "Digital Warrant: Revised DDC 004-006 in aPublic Library."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32:367-377(Oct. 1988).

4) Su Rooke, "From 001 to 006: Implementing the New Dewey Schedules," *Catalogue & Index*, no. 86:6-8(Autumn 1987).

5) Robert H. Hassell, "Revising the Dewey Music Schedules: Tradition vs. Innovat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26:192-203(Apr./June 1982)

6) Response by Russell Sweeney, "Letters to the Editor," *Library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27:105-107(Jan./Mar. 1983)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융통성을 제공해 주게 된다. 본인이라면 音樂傳記(musical biography)를 그 부분 전체에 걸쳐서 분산시키기 보다는 알파벳순에 의하여 下位排列이 될 수 있도록 Cutter의 著者記號를 덧붙여서 789에 두도록 할 것이다.

2) 그 밖의 展開部分 및 改訂部分

Computer 중심의 communication과 TV, 그 밖의 大衆媒體(mass media)에 대한 소규모의 전개를 384+(380.3에는 일반적인 communication 文獻에 대하여 짧은 표를 아울러 갖추고 있다)와 791.4+ 그리고 621.38+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된 hardware 및 engineering에 대해서는 621.39+(이 마지막의 computer hardware에 대한 새로운

기호는 621.38195를 대체함)에서 그리고 電子game(electronic game)은 794.8+에서 발견할 수 있다. 電子私書函(electronic mail)과 videotex, 현재 이용이 가능한 여러가지의 無料 및 有料TV와 같은 새로운 통신매체는 모두 384+에 열거되어 있다. VCR를 나머지 TV hardware와 함께 621.388에 모두 배치하지 않고 여기에 열거한 것은(여기에서는 頭文字語(acronym) 대신에 "Video recorders and recordings"를 사용한다) 어떤 도서관 이용자와 分類擔當者에게는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의 여러 學問사이의 끝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DDC 제20판에서 전개가 이루어진 그 밖의 主題分野는 다음과 같다.

- 이전에는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직화되지도 않았던 類인 003의 Systems가 현재는 두드러지게 전개되어 operations research와, system理論 및 관련주제에 할당되고 있다.
- 人權(Civil rights)은 323.4에서 323으로 단계가 상승되었으며, 324.1-324.23의 政黨(Political parties)은 눈에 띄게 전개되었다.
- 333.79의 Energy(DDC 제19판에서는 "Energy and energyresources"라 함)에는 현재 生産(production)(이전에는 338)과 財政

的 側面(financial aspects), 再生/代替源(renewable/alternative sources), 特殊利用(specific uses)이 포함되어 있다.

- 362-363의 社會問題 및 奉仕(Social problems and services)에는 현재 362.29에 물질의 남용(substance abuse)(DDC 제19판에서는 "Addictions"라 함)에 대한 특수한 발전분야를 그리고 363.728+에 쓰레기의 처리(waste disposal)(사회에 있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를 다루고 있다. 374의 成人教育(Adult education)에서는 현재 獨學(self-education) 대신에 政府의 관련을 강조하고 학교 및 그 밖의 주제 아래에 더 많은 예들을 상세히 지시하고 있다.
- 530.4의 物質의 狀態(state of matter)는 현재 훨씬 더 상세하게 세분되었으며-4개의 하위주제에서 20개의 하위주제로 세분-현재의 주요연구분야를 상세히 지시하고 있다. 우리가 Olympic種目を "무료" 방송망의 TV방송에서 golden hour에(비록 본인의 생각으로는 廣告放送을 시청하는 心理的 經費가 매달 요금을 지불하는 것 만큼 아주 부담이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有料TV의 sports channel에서 시청하게 되는 力道와 體操, 그 밖의 track 및 field sports는 현재 796.4+에 전개되어 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中央America의 모든 나라에 대한 단순한 年代的 細區分 대신에 그 각국에 대한 歷史的 時代를 설정하고 있는 972.8+가 대규모로 전개되었다. 이 부분과 南Africa 등에 대한 968+에서의 그 밖의 전개부분은 어떤 나라의 歷史가 실제로는 유럽인의 도착과 더불어 시작된다는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와 같이 매우 민감한 분야에 대하여 改訂者가 DDC의 기초가 되는 모든 지식을 조직한다는 원칙을 발휘하지 않고 비유럽적인 歷史的 觀點을 밝힘으로써 균형을 유지하려 한 것도 역시 잘못이다. 그 대신에, 文獻的 根據(literary warrant)의 원칙이 우선순위를

갖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 표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DDC 제19판에서 “Historical and geographical…”로 나타날 수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DDC 제20판에서는 “Historical, geographical, persons…”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주제분야와 함께 그룹화되는 傳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관례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 밖의 用語에 있어서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즉 索引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은 AACR2의 규칙들과 일관성을 갖게 되며, 따라서 分類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目錄에 마련되어 있는 용어를 연결시키기가 더욱 손쉽게 되었다. 그러나 地名은 原語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分類擔當者는 단지 “Lower Franconia District” 대신에 “Unterfranken Regierungsbezirk(Lower Franconia District)”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그리고 앞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용어에 있어서의 약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DDC 제20판은 그 이전판에 비하여 고풍스럽고, 판단을 내려야 하며, 편향적이던 성격이 줄어들게 되었다.

### 3) 再配置部分

어떤 주제의 일반적 측면과 특수한 측면을 하나의 記號에 함께 오도록 한 것은 훌륭한 원칙으로, 380.3을 384로, 그리고 380.5-수송에 관한 일반적 작-을 수송에 대한 다른 것들과 함께 388로 옮긴 것이 그 예이다. 學際的 主題(interdisciplinary topic)의 초점을 변화시키기 위해 몇가지의 再配置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이전에는 401.9에 言語學(linguistics)과 함께 배치되었던 社會言語學(sociolinguistics)이 현재는 306.44의 社會學(sociology)에 배치되어 있다.
- 이전에는 529.7+에 天文學(astronomy)과 함께 배치되었던 時間system(time systems)과 시간 측정 도구(time instruments)는 현재 389.65의 度量衡學과 標準化(metrology and standardization)과 681.11의 精密道具(pre-

cision instruments)에 각각 배치되어 있다.

- 이전에는 782에 音樂과 함께 배치되었던 劇音樂(dramatic music)은 현재 792.5-792.8의 Drama의 “劇音樂의 무대표현(stage presentation of dramatic music)에 배치되어 있다.
- 이전에는 796.4에 recreation과 함께 배치되었던 體育活動(Athletic exercise)은 현재 613.71의 醫學(medical science)(본인은 이를 健康(health)과 동등하게 취급함)에 배치되어 있다.

많은 地域과 住民들에 대한 기호가 변경되고 또한 전개되었다. 새로운 지리와 시대에 대한 細區分은 英國領 Columbia(British Columbia)와 독일, 벨기에, 스위스, 日本에 대한 전개부분과 개정부분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Africa의 여러나라와 칠레, Melanesia, America原住民과 같은 第3世界地域과 住民에 대한 것이다. 제2표(table 2)의 南Africa에 대한 취급은 少數 白人支配層의 지리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 母國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호를 적절하게 열거하고, Sweto는 Johannesburg 등과 결합시키고 있다. 제5표(table 5)에서는 Africa인들이 言語와/나 民族의 유래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하여 네덜란드系的의 南Africa 태생의 白人(Afrikaners)은 다른 네덜란드 사람들과 함께 -3936에 그리고 Africa黑人은 -96+에 오도록 하고 있다. 분류는 단지 존재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일 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傳達內容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게 될 記號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관련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宗教分類表에는 상당수에 달하는 약간의 再配置가 이루어졌다. 즉 基督教教育(Christian education)은 207에서 268로 옮겨졌으며, 학문주제로서의 基督教信仰(Christianity)만이 원래의 기호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리스도의 再臨(The Second Coming)은 232.6-232.7에서 그 밖의 最後의 審判(Last Judgement)에 관한 주제와 함께 236.9로 옮겨졌다. 救世軍(Salvation Army)는 267.15(宗教事業을 위한 단체)에서 다른 監理教의 하부단체

(Methodist subgroup)와 함께 287.96으로 옮겨졌다. Unitarian教會는 288의 자체의 網目에서 Universalists, Morman教徒, 安息日 예수 再臨敎(Seventh Day Adventists) 등과 함께 289의 “기타(other)”의 범주로 옮겨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DC 제19판에서는 별도로 열거되었던 특정의 國家敎會는 여러곳, 예를들면 281.93에서 281.94-281.99까지, 283.3에서 283.4-283.9까지, 284.13에서 284.14-284.19까지에서 다른 地域細 區分과 결합되어 있다.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더욱 中立性을 취하도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Primitive and Oriental Churches”에서 “Early Church and Eastern Churches”로 변경한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改善點이다.

DDC 제19판에서는 다른 모든 統計學에 관한 主題와 함께 312에 배열되었던 人口統計(demographic statistics)는 제1표(table 1)의 統計學에 대한 助記性(즉 T1-021)을 추가하여, 人口(population)와 함께 또는 統計學이 나타내는 특정주제와 함께 현재는 304.6021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建築(architecture)의 상당수의 주제(720-724)가 재배치되고/거나 전개되었는데, 여기에는 720.4+의 特殊主題(special topics)가 포함된다. 이 특수 주제에는 “老弱者(aged and infirm)”(현재는 “late adulthood” 및 “ill”이라 함)을 위한 建物 외에도 현재는 建築과 環境(architecture and the environment) 그리고 多目的用 建物(multi purpose building)이 포함되어 있다. 東洋建築(Oriental architecture)은 722+에서 720.9+의 歷史的/地理的 取扱(historic/geographic treatments)으로 옮겨졌는데, 이것은 이 일반주제를 특정의 流派와 樣式을 위하여 유보된 기호와 함께 오도록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것이다. 東洋各國과 時代에 대한 세 구분도 상세히 지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많은 文獻을 더욱 훌륭하게 세분하여 배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彫刻(sculpture)에 대한 기호에 있어서는 현대 조각의 지리적 취급에 대한 一般指示事項이 Asia(730.95)와 India의 亞大陸(730.954)에 대한 두개의 특정의 기호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地域細區分의 사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본인은 혼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왜냐하면 指示를 생략함으로써 地理細區分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각의 유파와 양식(schools and styles of sculpture)에 대한 기호는 정의에 있어서 전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몇몇 추가의 下位主題의 下位主題가 포함되었다.

## 2. 體裁上的 變化

活字의 모양과 크기가 약간 달라지기는 했지만, computer出力 印刷에 대하여 말이 많았던 변화가 지면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더 중요한 것은 손쉽게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機械可讀版을 네권의 두꺼운 책으로 된 수천 페이지를 훑어 볼 수 있도록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 권의 책이 네권으로 증가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체재상의 변화이다. 한권을 추가함으로써 印刷本에서 data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서도 넉넉한 페이지 배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여백이 있어서 記號와 本文이 모두 분명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分類法을 가르치는 교사와 신참의 分類擔當者들은 상세한 manual을 제19판의 경우에서처럼<sup>7)</sup> 별도의 書名으로 다시 출판하는 대신에, 分類法의 本體내에(제4권에) 통합시킴으로써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무수한 많은 기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manual을 추가시킴으로써 네번째권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교사와 學生, 실무를 맡게 되는 分類擔當者들은 또한 표의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 많은 概要表를 받기게 될 것이다. 이 개요표들은 첫번째의 또는 가장 일반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manual

7) John Comaromi, *Manual on the Use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Edition 19*(Albany, New York: Forest Press, 1982).

에 대한 많은 参照에 이르기까지, 階層構造의 많은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에 관한 개관을 제공하게 된다.

또하나의 환영할 만한 변화는 相關索引(relative index)에서 보시오参照(see reference)를 없애버린 것이다. 分類擔當者の 편리성 이상으로, 추가의 調査를 없애게 된 것은 오랜 기간 사용해온 것 보다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여러 페이지를 넘기는 데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探索費用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즉시로 해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가지 새로운 기호법은 補助表(table)와 보조표의 記號에 대한 새로운 参照方法이다. 즉 대문자 "T"가 補助表 番號의 앞에 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T2는 제2표이며, T2-73은 제2표의 -73에 대한 略語이다. 틀림없이 눈과 두뇌를 통한 협력에 의하여 곧바로 이를 해석하게 될 것이다(이 新版을 통하여 DDC를 소개받게 되는 學生과 司書들은 이점에 대하여 두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 結 論

DDC 제20판에는 주요한 변경사항들—특히 computer科學과 音樂 phoenix表—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草案으로 발행되어 여러 해 동안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는 예상이 가능한 것이었으며 또한 예상되었어야 했던 일이며 그 시행을 위한 계획과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학문적 중심을 옮겨준 再配置部分은 어떤 이용자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만큼 다른 이용자에게는 불편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展開部分은 이미 다소간 도서관의 書架를 임의적으로 채우고 있는 文獻을 더 훌륭하게 세분하여 배열될 수 있도록 조정하게 될 것이므로 환영할 만한 것이다.

結論으로 序言에서 제시한 세가지 물음에 대한 본 書評者의 대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는 Melvil Dewey의 동의를 받을 만한 最新版인가?

對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Dewey는 여러가지 일을 용이하고, 신속하게, 적은 비용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가진 실용주의적 사람이었다. DDC 제20판은 그 이전판에 비하여 더욱 복잡하고 육중한 것처럼 보인다. 이로 인하여 業務는 늦어지고 총체적인 經費는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主題에 대해서는 자리수를 줄여주고 分類擔當者들을 위해 manual과 그 밖의 補助物들을 통합시키는 등의 훌륭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각으로는 훨씬 더 많은 選擇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표를 참고해야만 하는 많은 細區分이 존재하며, 이용자와 書架排列擔當者가 지나치게 긴 것으로 판단할 만한 많은 기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Dewey는 좋아할 것 같지 않다. 여기에 추가되는 것으로 DDC 제20판의 物理的 增加—세권 대신에 네권을 다루어야 한다—와 비록 실제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리적인 非效率性의 입장에서 생기게 되는 그에 따른 비용의 문제가 있다.

記號의 整合性(integrity of number)과 知識 및 主題의 관계에 있어서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 사이에서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對答: 상당하다. 분명히 기호의 整合性을 저해하는 再配置部分이 있다. 반면에 사물의 자연적 순서에 있어서, 즉 學問 사이의 경계가 이동하는 경우나 研究에 있어서 취하게 되는 예측할 수 없는 과정의 경우에는 약간의 위치이동은 불가피한 것이다. 學際的 主題(interdisciplinary subject)에 관한 초점을 변경시킨 변화에 대하여 이전의 초점에 불만을 가졌던 分類擔當者들은 만족할 것이다. 그러나 DDC는 學問에 의한 分類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學際的 主題를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방법으로 다루기에는 부적합한 것이다.

DDC 제20판의 대부분의 변경사항은 主題關係는 수정시키지 않은 채로 다만 주제의 階層構造만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다. 소규모의 재배치 부분이 대규모의 재배치 부분보다 숫적으로 월등하며, computer科學 phoenix표는 장서가 급격히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숫적으로는 비교적 작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音樂

phoenix표는 内部移動은 물론 790代로의 外部移動도 상당수 필요하게 된다. 音樂, 音樂 및 藝術, recreation의 장서를 일반적인 부분에 두지 않고 특별구역에 옮겨 보관하게 되는 많은 도서관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再配置 문제가 많은 불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한 司書들은 이것이 어떤 標準道具를 일반화할 경우에 있어서나 지불해야 하는 댓가이며 그들은 추가의 부담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이용자들은 여기에서 어떤 改善點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時間과 費用, 勞力을 들여서 배우고 실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對答: 十中八九는 그럴 것이다. Computing, television, sports, 宗教(religion), 音樂(music),

歷史(history), 藝術(art)이 전개와 개정을 통하여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 영역의 어떤 분야 또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규모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에서는 新版을 통하여 훌륭한 봉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분야의 장서에 대하여 거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 소규모의 도서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이 가운데 한 분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규모의 장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을 찾기로 어려울 것이며, 대부분의 도서관은 그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藏書를 가지고 있다.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현재로부터 DDC 제21판이 나오기 까지는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 한국도서관협회 출판물안내

[1]3[7]-[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 (535) 4868 · 5616

| 서 명           | 저 자      | 발행년도 | 면수  | 가 격     |
|---------------|----------|------|-----|---------|
| 도서관학·정보학 용어사전 | 사공 철 등 편 | 1986 | 335 | 25,000원 |
| 한국학자료선정목록     | 한국도서관협회  | 1986 | 331 | 18,000원 |
| 비도서 자료        | 김 남 석    | 1984 | 344 | 5,000원  |
| 한국도서관통계(1987) | 한국도서관협회  | 1988 | 59  | 4,000원  |
| 한국도서관기준       | 기준분과위원회편 | 1981 | 109 | 3,500원  |
| 선정도서목록 IV     | 한국도서관협회  | 1971 | 222 | 3,000원  |
| 선정도서목록 II     | 한국도서관협회  | 1967 | 222 | 2,500원  |